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THE DECEIVERS

가제 : 사기꾼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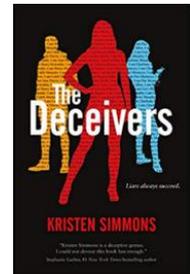
저자 : Kristen Simmons

출판사: Tor Teen

발행일: 2019년 2월 5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미스터리/스릴러



- \* “빠르고 영리한 이야기를 통해 선과 악 사이의 윤리적 회색지대를 탐색한다. 거짓말이 이렇게 재미 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ousandth Floor Trilogy』의 작가 캐서린 맥기
- \* 완벽한 사기, 영리한 인물들, 신뢰할 수 없는 로맨스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는 욕망을 그린 이야기.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없이 읽어 치웠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Caraval』의 작가 스테파니 가버

희망이라고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삶에 지친 브린은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날 유일한 돌파구 하나만 보며 견뎌왔다. 꼭 필요한 지식조차 아주 기초적인 수준 이상으로는 가르쳐주지 않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가난과 범죄에 찌든 동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대학에 가려면 일단 돈이 필요한 만큼, 브린은 돈을 쥐꼬리만큼 주는 도서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훨씬 더 수입이 짝잘한 일도 병행한다. 브린의 기준으로 턱없이 많은 용돈을 누리며 사는 부잣집 또래 아이들에게 작은 사기를 쳐서 어차피 남아도는 그 용돈을 뜯어내는 것. 그런데 이 유일한 희망마저 엄마가 남자친구라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박살내고, 절망하던 브린에게 낯선 아이들이 다가온다. 이들에게 이끌려 알게 된 ‘베일 홀 아카데미’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장학생으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진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그러나 브린이 덩석 잡은 그 기회는 장밋빛 꿈이 아닌, 도덕과 비도덕의 경계가 어디인지 가능할 수 없는 회색 지대로 브린을 몰고 간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 괜찮은 삶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평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까? 비밀과 충격적인 반전이 가득한 베일 홀 아카데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고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등장하는 오딘 신과 그가 사는 발할라, 발키리 여전사 브룬힐드를 연상시키면서도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터져 나온 욕망의 이면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린다.

브린의 엄마가 애인이라며 데리고 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남자는 브린의 인생을 더 엉망으

로 만들었다. 길거리에서 마약을 파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온갖 행패를 서슴지 않는 사람과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야 하는 판국이 된 것이다. 브린이 고등학교에서 처음 사귄 남자친구도 그 남자와 몇 번 만나더니 곧 그의 수족이 되어 마약 장사에 나섰다. 그러니 브린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지옥이었다. 틈만 나면 부자 동네로 넘어가서 쿵쿵 뛰는 심장을 달래가며 지갑에 몇 백 달러쯤 늘 넣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소소한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며 대학 갈 준비를 하던 브린은 엄마의 애인이라는 그 작자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둔 돈을 싹 다 털어가자 그대로 주저 않는다. 바로 그 때,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주변을 맴돌던 낯선 소년이 브린에게 접근한다. 처음에는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나, 싶었던 우연한 만남이 노골적으로 이어지자 브린이 먼저 그 소년을 미행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를 비롯한 또래 아이들 몇몇이 브린을 점 찍어두고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테스트에 통과하면 베일 힐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전해졌다. 입학만 하면 대학 입학은 따놓은 것으로 봐도 되는 그곳에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브린은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고, 어렵지 않게 테스트에 통과한다.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새로운 삶은 시작부터 뼈걱댄다. 그곳은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명문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사기꾼 양성 학교'였다. 거짓말과 위장, 사기로 남을 속여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 한 마디로 도둑과 스파이, 사기꾼을 키우는 곳이었다.

물러날 곳이 없는 브린은 어쩔 수 없이 이 이상한 수업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곧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부패한 시 공무원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에 죄책감도 크게 덜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흥분하게 임무를 받아들인 브린은 자신이 맡은 '표적'인 상원의원 그레이스 스티어링의 아들을 살살이 조사한다. 뒤에서 온갖 악행을 자행해온 이 권력층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브린은 그 아들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경제적인 풍족함 외에는 자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오만하고 거들먹거리기만 하는, 귀하게 자란 버릇없는 부잣집 아이로 보였던 그의 행동과 태도가 벗어날 수 없는 폭력에 갇혀 불행을 견디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이중, 삼중으로 쌓인 비밀과 거짓의 세상에 발을 들인 브린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큰 혼란에 빠진다. 베일 힐 아카데미,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닥터 오딘'이라는 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브린은 그제야 자신이 멋모르고 발을 들인 베일 힐과 비밀 미션이 겉으로 드러난 것, 혹은 설명을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긴 교장에게 엄청난 비밀이 있으며, 그것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브린의 이야기는 2편 『A STUDY IN DECEPTION』로 이어질 예정이다.

#### <저자 소개>

크리스틴 시몬스(Kristen Simmons)는 『Article 5』 시리즈와 『Metaltown』 등을 쓴 소설가다. 이전에 발표된 시리즈들은 호주, 터키, 독일, 대만, 스페인, 폴란드에서도 출간됐다. 정신건강 치료사로 폭행,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다.

제목 : CURSE SO DARK AND LONELY

가제 : 어둡고 사랑스러운 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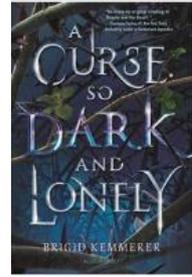
저자 : Brigid Kemmerer

출판사: Bloomsbury YA

발행일: 2019년 1월 29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불가리아, 브라질, 러시아, 체코, 독일, 스페인 판권 계약
-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YA 하드커버 부문 7위 / 미국 지역별 독립형 서점 베스트셀러
- \* “섬세하게 그려진 판타지 세상, 소설에서 흔히 보 수 없는 여주인공, 비밀을 간직한 채 힘겨워하는 영웅까지, 고전 동화가 재탄생할 때 독자들이 바라는 모든 요소가 담긴 이야기”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A SPARK OF LIGHT』의 작가 조디 피콜트

병들어 앓고 있는 엄마, 하늘나라로 간 아빠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인 빛더미를 억지로 틀어막느라 인생이 망가져버린 오빠와 함께 뇌성마비로 다리를 질질 끌며 매일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소녀 하퍼와 마법의 힘이 강하게 드리워진 또 다른 세상에서 사악한 저주의 굴레에 갇힌 렌 왕자가 뜻하지 않게 만난다. 이미 각자의 삶이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지옥 그 자체였기에 그저 제자리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던, 혹은 달라질 것은 없다고 자포자기하던 두 사람은 어쩌면 서로가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치 못한 빛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함께 가보기로 한다. 혼잡한 워싱턴 시내와 시간이 멈춰버린 또 다른 세상 속 엠버폴 왕국의 거대한 왕궁을 넘나들며 <미녀와 야수>를 재해석한 이 판타지 시리즈는 뻘한 줄거리 대신 예측할 수 없는 싸움과 로맨스로 독자들을 데려간다. 두 주인공의 복합적인 주변 인물들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옛 동화들에 내포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정직함과 신뢰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한 매력적인 소설이다.

엠버폴 왕국의 유일한 왕족인 렌 왕자는 손톱 아래까지 깊이 스며든 피를 씻어내며 328번째로 다가올 18세 생일을 준비한다. 한 때는 살기 좋은 왕국으로 소문났던 이곳은 분노와 증오심으로 눈이 멀어버린 릴리스 왕비가 내린 저주에 걸려 이제 죽음과 피의 냄새만 가득한 텅 빈 폐허가 되어 버렸다.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단 여섯 명 남은 호위병과 함께 성을 지키는 렌 왕자는 시간이 묶여버린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매번 실패였다. 방법은 단 하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연인을 찾는 것이다. 생일날로부터 딱 3개월 후, 왕자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잔인한 괴물로 변해버리더라도 그를 겁내지 않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연인이 나타난다면 저주는 풀리고 다시 왕국을 되살릴 수 있다. 호위병 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인 그레이가 엠버폴의 저주를 풀어줄 일종의 연인 ‘후보’를 찾아 데리고 왔지만 327회 째에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섬뜩한 괴물의 형체에서 가까스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때 렌 왕자에게 남은 건 늘 주위에 진동하는 피비린내와 온 몸을 피로 뒤집어쓴 자신의 모습이 전부였다. 반복

된 실패, 호시탐탐 왕국을 노리는 이웃 나라들을 경계하며 한 시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삶에 지쳐버린 렌 왕자는 실낱 같던 희망도 모두 잃은 채 또 다른 생일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번에 그레이가 데려온 소녀는 뭔가 달랐다. 자신이 릴리스를 만나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자신하는 이 당찬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 렌은 처음 저주에 걸렸을 때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다시 품게 된다.

하퍼의 오빠 제이크는 덩치만 컸지 마음이 아주 여리고 착해서 어릴 때부터 벌레 한 마리 못 잡는 성격이었다. 그런 오빠가 '빛 독촉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협박을 일삼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물론 오빠가 선택한 직업은 아니었다. 아빠가 남기고 간 빛을 내놓으라며 하퍼의 집에 들이닥친 빛쟁이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사업'을 돕는 것뿐이었고, 몸져누운 엄마와 뇌성마비로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하퍼 대신 오빠가 그 일을 떠 맡게 된 것이다. 하퍼는 오빠가 '작업'을 하러 갈 때면 늘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손을 벌벌 떨며 나오는 오빠와 함께 집에 돌아가곤 했다.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자신이 한 짓을 감당하지 못해 황망히 모든 과정을 털어놓는 오빠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저 꼭 참고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하퍼의 몫이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오빠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어느 날, 하퍼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온다. 대낮에, 덩치 큰 남자가 자신의 절반도 안 될 것 같은 작은 여성을 들쳐 메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납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하퍼는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다리를 끌고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가 대담하게 남자를 향해 덤벼든다. 제발 사고만 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오빠가 알면 화를 내겠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남자에게 한 손에 붙들린 하퍼는 이제 한 대 제대로 맞겠구나, 싶은 순간 갑자기 주변 풍경이 다 사라지고 거대한 암흑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잠깐 정신을 잃은 하퍼는 겨우 눈을 뜨고서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왔음을 깨달는다. 엠버폴 왕국으로 온 것이다.

렌 왕자가 328번째 맞이하는 18세 생일에 그레이의 두 팔에 안겨 엠버폴로 온 하퍼는 진짜 사랑을 찾아야만 저주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나 '알 수 없는 괴물'이 성을 덮쳐 렌 왕자의 부모와 가족들을 광그리 죽였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 제이크 오빠가 자신이 없어진 것을 알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할지 그 걱정 외에는 이런 요상한 성에서 낯선 차림을 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나 해대는 사람들의 말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주를 푸는 것이라면 그 릴리스라는 잔인한 여행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뱉을 수 있었다. 뇌성마비와 나락으로 떨어진 집안 형편에도 이유 없이 기가 죽거나 굴복할 필요는 없다는 당당한 성격으로 살아온 하퍼 다운 방법이었다. 그러나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하퍼의 계획은 릴리스가 엠버폴 왕국을 공격해서 아예 통째로 손에 넣으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번갈아 가며 등장하는 하퍼와 렌의 시선을 통해 갖가지 장애와 고난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험과 투쟁, 우정과 로맨스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 <저자 소개>

브리짓 케머러(Brigid Kemmerer)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로 『More Than We Can Tell』을 비롯해 『Letters to the Lost』, 『Elementals』 시리즈 등을 썼다.